

문화



김래원의 영화 속 클래식 이야기



말년의 샤넬은 충격적인 고백을 한다. 유명한 음악가 스트라빈스키와 자신이 과거에 그렇고 그런 관계였다는 것. 확

을 표현했다.

하지만 이 순간엔 클래식 음악의 20세기 열린 순간이었으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와 과거가 조우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영화의 내용은 샤넬과 스트라빈스키의 불륜에 관한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이 영화를 기억하는 이유는 스트라빈스키의 대표작인 발레음악 '봄의 제전' 때문이다.

근래까지 가장 명반으로 꼽혔던 '봄의 제전' 연주에는 피에르 블레즈가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연주한 소니 녹음이다.

영화는 클래식 음악 역사상 전무후무한 스캔들로 기록된 1913년 5월 29일 프랑스로 상륙한 극장 '봄의 제전' 초연 장면부터 시작한다. 놀라게도 안 쿠



국내의 작가간 교류를 통해 지역 미술 활성화를 내건 대안 예술공간인 미테 우그로의 전시관 '미테'(사진 왼쪽)와 예술가들의 커뮤니티 카페 '우그로'전경.



(미테우그로 제공)

전 세계 미술 교류 허브 '광주'

광주에 부는 레지던시 바람

광주가 '레지던시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 해외 예술가들이 지역에 머무르며 창작과 작품 활동을 펼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광주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어서다.

특히 광주비엔날레를 비롯, 광주문화재단과 미테우그로 등은 단순한 창작 공간 제공 수준이 아닌, 지역 사회 및 주민과 만나는 색다른 예술 공간으로서 활용할 뿐만 아니라 해외 미술계와의 네트워크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광주문화재단은 아시아 지역 예술인들을 초청, 지역에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과 작품 제작비를 지원하는 '아시아문화예술인레지던스 사업'을 6주에 걸쳐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필리핀·말레이시아·태국·인도 등 4개국 출신 작가들과 박상화·권승찬·정은화·진시영 등 한국 작가들이 짝을 이뤄 '미디어아트'를 주제로 공동 창작 활동을 펼쳐 작품을 선보이게 된다.

문화재단은 지역 작가들의 창작 활동에 도움을 주는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국내외 작가들간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광주비엔날레의 올해 전시 코드도 '레지던시' 프로그램 강화에 맞춰졌다. 단순히 기존 작품을 보여주는 '소극적, 형식적' 측면에

기간 중 퍼포먼스 참여형 등 다양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주된 상대. 국내외의 미술계 뿐만 아니라 지역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뉴질랜드 출신 작가인 스콧 이디는 지역에서 수집한 고장나 버려진 자전거를 모아 새로운 자전거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추진하

회 소외계층의 이야기와 신도시 형성에 담긴 숨겨진 뒷얘기를 벽화로 표현하는 '액션인 코리아'라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대인 시장에서 지역 큐레이터, 작가 등과 협업하면서 시장에 형성된 미술 커뮤니티를 소개하고 미술계의 대안적 활동이나 목소리를 담아내겠다는 대안 출신 준양씨의 작품도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이뤄진다.

광주문화재단·비엔날레·미테우그로 등 프로 진행

지역민과 소통하며 작품 제작...인적 네트워크 강화

서 벗어나 작가가 새로운 작품을 지역에서 지역민들과 소통하며 만들어가는 쪽으로 전시 방향을 맞춰 광주비엔날레만의 정체성 및 지역 미술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시도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비엔날레의 경우 15명의 작가들에게 단순한 작업 공간 제공 형식을 넘어서 ▲일반 시민 ▲지역 작가·관련 학과 학생과의 협업 ▲지역을 소재로 활용한 작품 완성 ▲전시

면서 지역에서 머무르면서 지역 공동체, 동호회와 워크숍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호주 출신 크레이그 윌시와 일본 작가인 히로미 탕고는 10일부터 지역에서 머무르며 지역민을 인터뷰하고 지역에서

서 소품을 찾아 지역민들과 협업으로 작품을 만들어간다. 브라질 출신 모니카 나도르는 급격한 도시화 과정 속에서 번두리로 밀려난 지역 사

이와 광주미술협회도 말레이시아 작가들을 초청, 창작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 예술인들과의 교류를 통한 지역 미술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지용기자 dok2000@

영화 '샤넬과 스트라빈스키' 중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음악 미래 보여준 충격적 순간

냉 감독은 초연 당시의 증언들과 자료를 모두 고조하여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한다.

당대 최고의 흥행사 디아길레프가 기획하고, 대가 니진스키가 발레 안무를 짠 작품이니 만큼 당시 관객들의 기대는 엄청났을 것이다. 하지만 객석의 불이 꺼지고 공연이 시작되자 공연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멋진 음악과 발레를 기대하고 있던 파리의 선남 선녀들은 귀를 간직하는 달콤한 멜로디는 커녕 원시적인 리듬과 동물의 울음소리처럼 울부짖는 악기들의 처절한 사운드를 듣게되고, 춤이라기보다는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몸짓으로 일관하는 무용수들의 움직임은 그들이 듣고 기대해오던 모든 통념을 철저히 짓밟고 파괴한다.

이 거대한 야생의 파티를 본 당시의 관객들은 공연도중 고향을 지르고 불건을 집어던졌으며, 욕을 퍼부었다. 당시 공연에 참석했던 시인 장 콕토는 "숲이 미쳐버린 것 같았다"는 표현으로 상황

르는 교과서적인 연주다.

보다 자극적이고 강렬한 사운드를 체험하고 싶다면 리카르도 무티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EMI 녹음이 신선했 것이다. 강렬한 액센트와 바짝 날이 선 리듬, 반짝이는 금관, 필라델피아 사운드를 최대한 활용한 무티의 관록이 돋보이는 연주다.

하지만, 음반 역사상 전무후무하다고 해도 좋을 최고의 명반은 바로 발레리 게르기예프와 마린스키 극장 오케스트라의 필립스 녹음이다. 연주 자체에 지휘자의 확고한 신념이 깃들여 있다. 마치 한편의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는 느낌으로 낱차 큰 다이내믹과 강렬한 리듬, 포효하는 금관의 사운드로 청자를 압도한다. 야성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연주를 진공관 레코딩 장비를 이용하여 고음질로 담아낸 필립스 녹음팀에게도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봄의 제전' 초연이 그랬던 것처럼, 게르기예프의 '봄의 제전'은 이 곡 연주의 미래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순간이다.

다시 새기는 항일 독립의병 정신

오늘부터 무안·여수·광주서 김구-안중근의사 자료전

8·15 광복절 67주년을 맞아 기획된 '학교로 보는 한국근현대사, 백범 김구선생-안중근 의사 자료 전시회'가 무안·여수·광주에서 잇따라 열린다.

(사)백범 문화재단(이사장 안종일)이 마련한 이번 행사에서는 애국 계몽기 학교, 일제 강점기 학교, 광복 직후의 학교 교육의 모습을 담은 20여점의 사진이 전시된다.

또 백범 김구 선생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백범과 보은의 전라도 길 등 김구 선생의 사진자료 및 유물(遺物·생전에 남긴 글씨나 그

림) 20점이 전시되며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 관련 사진, 옥중투쟁과 순국 관련 사진, 옥중 휘호 등도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의 개막식은 13일 오전 11시 무안군 전남 도립도서관 1층 남도 화랑(20일 까지)에서 열리며 이후 여수진남학생교육문화관 1층 전시실(22일~9월3일),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회관 1층 회의실(9월5일~16일)에서 계속된다. 문의 062-233-247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안중근 의사

할리우드 '갱스터' 들여다보기

광주시네마테크 17일 전문가 강좌

광주시네마테크는 영화전문가들을 초빙, 할리우드 시스템에서 오래도록 살아남은 6개 장르에 대한 강좌 '할리우드 장르'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열렸던 웨스턴 장르 강좌에 이어 오는 17일에는 갱스터 장르 영화 감상과 강의가 열린다.

최근 문을 연 대안 문화 공간 '메이홀'(http://mayhall.co.kr)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에서는 오후 7시부터 '스카페이스'(1932년)를 상영한다. 이후 8시40분부터 영화평론가 유윤성씨의 강연이 이어진다. 문의 010-2517-8707. /김미은기자 mekim@



평론가 유윤성

기차표/항공권/승선권 국제선 할인항공권 판매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무궁화호 당일 남강변의 고찰 신록사와 드라마 세트장인 드라마야를 가족 친지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열차상품.

여수신록사 MBC 드라마야 기차여행 출발일 9월 8일(토) 07:00경 광주역 출발 (당일) 여행비 55,000원 (어린이: 44,000원)

무궁화호 당일 임진각·도라전망대 제3땅굴 기차여행 출발일 9월 15일(토) 07:12경 광주승정역 출발 (당일) 여행비 45,500원 (어린이: 36,000원)

임진각·도라전망대 제3땅굴 기차여행 출발일 9월 15일(토) 07:12경 광주승정역 출발 (당일) 여행비 45,500원 (어린이: 36,000원)

moviehelic Megabox advertisement with cinema listings for Hwasung, Hwasung, and Hwasung branches.